

해남 농가 창고서 만나는 동화 같은 그림

귀농 10년 전병오·정수연 부부
 배짱이농부네 예술창고서
 7월 20일까지
 ‘고라니가 키우는 콩밭’ 전
 정수연씨 시 소재
 박미화 작가 그림 17점 선배
 행촌미술관 ‘풍류남도 프로젝트’



박미화 작 '애지중지 콩을 돌보는 고라니'

조그만 시골농가 창고가 갤러리로 재탄생했다. 해남군 만안리 미세마을에 위치한 '배짱이농부네 예술창고'에서 '고라니가 키우는 콩밭'전이 7월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행촌문화재단이 올해 진행하는 '2016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 일환이다. 정수연 씨 '고라니가 키우는 콩밭'을 소재로 박미화 작가 그린 그림 17점을 전시한다. '배짱이농부네 예술창고'는 약 10년 전 서울에서 극작을 하다 귀농한 전병오(46)·정수연(48) 부부가 농산물이나 농기계를 보관하던 장소였다. '배짱이 농부네'는 농사 중간 틈틈이 시와 대본을 쓰고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는 전병오부부에게 행촌문화재단이 개발해 준 농가 브랜드다. 부부는 지난해 해남 출신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다룬 연극 '소녀들 : 우리 여기 살아있어요'를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민들을 출연시키며 주목을 받았었다. 프로젝트에 한 서울 박미화 작가는 지난해 해남 답사에서 배짱이 부부를 처음 만났다. 젊은 조부 농사꾼 부부는 농사를 지으며 겪었던 여러 일

을 들려줬고 박 작가는 여기서 착안해 이번 전시가 기획했다. 특히 예술은 어디서나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약 20㎡(6평)창고를 갤러리로 개조해 전시를 열자는 데 동의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지역 작가들은 즉석에서 현판을 제작해 설치해주기도 했다. 전시 모티브가 된 시 '고라니가 키우는 콩밭'은 콩잎을 좋아하는 고라니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 고민을 했던 부부 경험담이다. 순한 고라니 눈을 본 부부는 차마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누구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같이 키워보자는 내용을 담았다. 박 작가는 부부 이야기를 목탄을 활용한 파스텔풍 회화작품으로 풀어냈다. 동네 할머니에게 얻은 밭을 살펴보는 부부가 등장하는 '처음 얻은 밭', 숨어서 콩밭을 지켜보는 고라니를 그린 '숲속에서' 등 작품을 살펴보면 마치 동화를 읽는 느낌이 든다. 작품 '잠 못 이루는'에서는 고민하다 지쳐 잠이 든 정씨를 창문 밖에 고라니가 지긋이 지

켜보고 있다. '이 콩을 드시고'에서는 왕관을 쓴 고라니에게 정씨가 콩을 바치고 '애지중지'에서는 고라니가 콩밭을 돌보고 있다. 작품 '태평성대'에 이르러서는 고라니와 사이좋게 콩 농사를 짓는 정씨가 등장하며 갈등이 해소된다. 동화같은 이야기에 작품은 높은 인기를 끌며 지난 5월 27일 개막식 깜짝 경매에서 13점 판매되기도 했다. 첫 낙찰자는 11세 여자아이였다. 예상보다 높은 판매량에 원래 9월 30일까지 전시를 열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7월 20일에 마감한다.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박 작가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전시장 한편에서는 전시기간 내에 지역 농산물 판매공간도 마련된다. 부부는 앞으로도 예술창고에서 꾸준히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해 남도 농가와 예술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10-3052-58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창고를 개조해 갤러리를 만든 해남 '배짱이농부네' 전병오·정수연부부 자택



예술창고 내부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아시아현대미술연대展

한국·대만·일본 작가 30명
 26일까지 비엔날레 전시실



▶우첸장 작 '타이완 타이시의 비전'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물은 곧 생명이자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과 외국 젊은 작가들이 물을 소재로 인간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연합 전시를 개최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이 타이완 '햇스프링프로젝트 스튜디오'(대표 우상린)와 공동주최로 '2016 하류-전환적 삶의 방식-아시아현대미술연대'전을 26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참여작가는 한국 14명, 대만 12명, 일본 3명, 프랑스 1명 등 총 30명이다. 작가들은 각자 방식으로 물과 환경,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 타이완 우첸장 작가는 사진작품 '타이완 타이시의 비전'을 출품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나오는 공업지대 앞으로 바다가 펼쳐져있다. 해안가 방파제에는 공무원 복장을 한 사람이 우두커니 서서 관객들을 주시한다. 물이 귀한 섬나라 타이완이 경제발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습을 풍자한 작품이다. 그밖에 광주 김경란 작가는 막걸리 병을 활용해 꽃을 표현한 '보랏빛 세상', 타이완 리밍웨이 작가는 한국에서 구입한 세제, 음료 등 파란색 액체상품에 구멍을 뚫어 냄새와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흐름'을 설치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지난해 2월 타이완 가오슝시에서 열린데 이어 광주에서 두번째 열리는 순회 전시로 중국, 일본 등과도 연계 전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4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미연 작가 개인전

17일까지 주안미술관

최미연 작가가 17일까지 주안미술관에서 'Space Time'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과 전통 요소 '산'을 반복적인 세밀한 회법으로 담아내어 현재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유토피아를 찾는 여정을 표현한다. 작품 'Space Time' 시리즈는 행성, 비행기, 오리 튜브 등을 등장시키며 사물에게도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작가 염원이 드러나 있다. 붉거나 노란 배경에 세밀함으로 가는 선을 그려 산을 표현한 기법이 특징이다. 산 능선에는 초록, 파랑, 빨강으로 채색해 돌산에 핀 소나무 등을 묘사했다. 또한 여백 미가 느껴지는 하늘에는 별, 비행선을 배치해 작품을 보는 재미를 더한다. 최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한국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주시립미술대 대상(2010) 수상했다.



'Space Time'

'2012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공모에 선정되며 최연소 참여 작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문의 062-222-20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6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16. 6. 7(화) ~ 6. 10(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6년 6월 23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7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 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